	보도자료	배포일자	11.12.(목)	매수	2매
		보도일시	배포 후 즉시		
	공공의료본부	실 장	한은주	☎	054-530-3042
	공공의료사업팀	담 당	김진이		054-530-3029

상주적십자병원,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취약계층 건강검진 · 예방접종 지원

◆ 한국수출입은행 후원으로 13개국 출신 외국인 등 건강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



건강검진 받는 모습



예방접종 실시 모습

□ 상주적십자병원(병원장 김혁수) 누구나진료센터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후원으로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「종합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사업」을 추진하고 있다.

□ 이번 사업은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, 동티모르를 비롯한 약 13개국 출신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.

□ 11월 12일 현재 종합건강검진 24명과 인플루엔자 및 파상풍 예방접종 40명이 지원을 완료했으며, 사업 기간 내 종합건강검진 약 70명, 예방접종 약 1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이번 사업은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 등이 언어·경제적 여건 등으로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기회를 제공하고, 질병의 조기 발견과 감염병 예방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.

□ 특히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추가 검사나 진료·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을 연계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적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상주적십자병원 공공의료본부 한은주 실장은 “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중요한 출발점”이라며 “앞으로도 한국수출입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 공공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하겠다”고 전했다.